

물론 제목은 나에게 하는 말.

근래 먹었던 것들 중 마이플레이스 리뷰하기 애매한 것들 모아봤다.



너구리에 다시마 넣는 작업이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간혹 이렇게 다시마가 여러 장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두 개 나온 건 봤어도 세 개는 처음 보는 듯.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샐러드.

175g, 138kcal, 4600원.

방울토마토가 진짜 달다.

일반 설탕 단맛 300배... 스테비아가 좋긴 좋다.

동봉된 닭고기와 메추리알, 채소도 무난하게 취향에 맞고 다 괜찮았다.

구성이 알차고 실패 없는 샐러드.





다만 칼로리 낮은 건 이유가 있다.  
딱히 먹을 게 없다.  
그래도 만족!



NEW정성가득비빔밥.  
400g, 590kcal, 4300원.

이것도 실패 없는 메뉴다.  
엄마가 좋아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먹고 나면 포장에 나온 대로 맛있고 건강하게 한 끼 해결한 기분이 든다.  
다만 사람에 따라 포장으로 기대한 것에 비해 양이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





설에 먹은 엄마표 떡국.

색이 뿌옇길래 사골 국물로 만드셨나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한다.

미역국 끓이듯이 국물 끓이기 전에 먼저 소고기를 볶아주고 연두 넣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저런 색을 띠게 되는 듯. 맛있게 잘 먹었다.



고사리 무침, 굴김치, 냉이무침, 오이도라지무침, 미역줄기, 배추김치와 공밥.

혼자 살면서 해먹기 힘든 음식이라 맛있게 잘 먹었다.





남은 미역 줄기는 소기름 참치 파스타에 얹어서 처리.

소기름은 통대창 해먹으면서 나온 게 아까워서 굳혀둔 뒤 두고두고 써먹고 있다.

소기름이 몸속에서 굳는다, 포화지방 비율이 불포화지방에 비해 높아 몸에 좋지 않다는 말을 종종 들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

찾아보니 어차피 소화 과정에서 분자량이 작은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몸속에서 굳을 일도 없고 돼지기름은 라드라고 해서 잘만 먹는데 돼지나 소나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비율은 비슷해서 뭐...

내가 모르는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나 어쨌든 올리브유 대신 써먹어보니 냄새도 좋고 괜찮았다.



소갈비찜.

마트에서 사 온 양념된 돼지갈비, 소갈비로 한 번씩 만들어 먹었다.

쿠쿠 밥솥 만능 찜 기능으로 고기와 소스, 물 넣고 60분 돌렸다.

갓 조리 후 조금 맛보는 정도라면 괜찮지만, 제대로 먹으려면 한 번 냉장고에 식혀주어야 한다.

식힌 뒤 위에 기름이 꽤 많이 굳는다.

기름을 한 번 제거해 준 뒤 먹는 걸 추천한다.

다음에 또 해먹게 되면 양념에 고기가 다 잠기지 않더라도 물 넣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할 듯.  
밥솥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밥솥의 반 정도만 채워도 국물이 밥솥 밖으로 다 새어 나온다.  
그리고 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싱겁다.

물론 고기의 품질, 상태, 종류와 소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갈비보단 돼지갈비가 더 싸고 맛있게 느껴졌다.  
같은 조리방법을 사용해도 맛은 서로 비슷한데, 가격은 거의 두 배 차이가 난다.



불닭볶음면 더 맛있게 먹는 법 (진세의 레시피) 영상(링크)을 보고 따라 해 먹은 불닭볶이.  
영상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각각의 면을 따로 익혀서 섞은 뒤, 불닭 쪽에 라면볶이를 넣어서 섞기
- 라면볶이 채소(건더기 스프)는 뚜껑 탁탁 털어 전부 넣기
- 불닭 플레이크 생략
- 입에 짹 채워서 우걱우걱 입술에 소스 묻을 정도로 먹기

처음부터 라면볶이 건더기 스프를 불닭 쪽에 넣어서 물을 빼면 야채를 더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라면볶이에서 익히나 싶었다.

직접 해보니 라면볶이의 물 버리는 구멍이 더 작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여기까지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고...

데코로 파슬리 살짝 얹어 먹어봤다.

먹어보니 라면볶이랑 불닭이 꽤 잘 어울린다.

매운 게 중화될 줄 알았는데 매운맛은 거의 똑같다.

치즈는 넣어 먹어도 그저 그랬고, 앞서 만들어 둔 갈비랑 같이 먹는 게 진짜 맛있었다.





길거리에서 사 먹은 계란빵.  
가격이 1500원인가 그랬는데 가격 진짜 많이 올랐다.





친구들이랑 모텔 놀러 가서 먹은 무모한 초밥, KFC 치킨, 교촌치킨.  
아는 맛이지만 맛있는 그 맛.



앞전 친구들이랑 모텔 놀러 가서 먹은 또 다른 메뉴.  
마라샹궈에 꺾바로우.  
꺾바로우는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마라샹궈는 밥이랑 맛있게 잘 먹었다.